

## 86. 취부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성별	남	나이	35세	직종	취부작업	업무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이OO은 1995년 9월 14일 OO 중공업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5년 3월 5일 울산 OO병원에서 MRI 촬영 후 4-5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이OO은 1995년 9월 14일에 OO중공업 조선사업부 건조 1부에 입사하여 9년 6개월간 취부사로만 작업을 하였다. 취부사로 용접기(20kg), 절단기 호스(30kg), 에어 호스(20kg), CO<sub>2</sub> 용접기, 파워작기, 레버폴러와 소공구로 그라인더(0.6kg), 망치 등 각종 공구를 가지고 주로 선체 구조물 조립작업을 수행한다. 주로 작업하는 장소는 선체구조물 내부이며 짧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여러 장비를 직접 옮기며 호스를 끌어다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이었고 3시간 잔업을 할 때도 많다. 선체 구조물내부취부 작업에서 작업자는 협소한 공간에서 주로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목을 과도하게 신전, 굴곡하거나 비트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선체 구조물 외부작업은 주로 서서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여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공정에서의 자세분석을 위한 인간공학적 평가도구인 REBA Worksheet와 OWAS 결과, 유해한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3. 의학적 소견:** 2005년 1월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 병력, 외상력과 특이 질병력이 없었으며, 2005년 2월부터 목의 통증과 손 저림, 어깨 통증이 심하여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5년 3월 5일 울산 OO병원에서 MRI 촬영 후 4-5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4. 결론:** 근로자 이OO는

- ① 근로자 이OO의 진단은 경추 만곡의 완만한 소실과 신경근 병증이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간)으로 확진되었고,
- ② 2005년 1월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 병력, 외상력과 특이 질병력이 없었으며,
- ③ 9년 6개월간 취부작업이 경추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공학적 조사 결과 경추의 과도한 굴절과 신전, 옆으로 구부리기, 뒤틀기 등의 위험요인이 경추부에 심한 하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 이OO에게 발생한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장기간의 부적절한 작업조건(작업자세)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